

38년전 총소리 멎어도 '끝나지 않은 전쟁'

6·25... '남침·반격' 단순시각 벗자

최장집 교수 <고려대 정외과·본사 논설위원>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한 역사에 대한 이해는 열려져 있다. 어쩌면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는 능력 만큼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을지 모른다. 최근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일고 있는 통일논의의 확산과 분단현실을 극복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볼 때 이 말의 의미는 특히 새롭다. 지난번 6·10남북학생회담 시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듯이 통일에의 열정이 고양되면 월수록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역사적인 대 사건으로서의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더욱 요구된다.

분단체제가 우리 삶 지배

사상유례 없는 동족상잔이었던 한국전쟁의 비극은 남북한 통틀어 2백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은 인명피해의 규모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의 분단체제를 확립하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은 전쟁직전 15만을 약간 웃돌던 남한의 군사력을 전쟁중 70만명으로 증강시켰고 전후 60만 대군의 병력을 제도화하였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군부관료 통치체제의 지속, 반공 이데올로기와 군사문화의 지배 등은 한국전쟁 및 이를 계기로 구조적으로 팽창한 군부의 존재와 관련시키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쟁은 일제시대의 수탈과 더불어 내전에 가까운 정치·경제 혼란을 통해 이미 파폐된 경제를 완전히 황폐시키고 말았고, 그로 말미암아 대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심화시켰다.

력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남북 정부간 대결로 양상이 변화된 국면으로 넘어간다. 이 시기에 우리는 미·소 양군의 철수, 남북한 군비경쟁의 강화, 38도선에서의 빈번한 충돌사건 그리고 전면전의 발발이라는 한 전형적인 재래전 발생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세번째 부분은 한국전쟁이 한반도에 국한된 국지전적 성격을 훨씬 넘어 중국대륙에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함으로써 3차 대전의 발발 위험성을 크게 내포하는 국면이라고 하겠다. 이 국면은 맥아더-덜레스로 이어지는 미공화당 강경파들이 압록강을 넘어 전선을 확대시키는 한편 핵무기의 사용을 포함한 공중폭격, 장제스 국민당 정부군의 본토상륙, 중국해안 봉쇄 등을 심각하게 고려한 시기였다. 이때는 한국전을 핵전쟁의 벼랑으로 몰아세우고 한반도가 거대한 세계전쟁의 배후지가 될 뻔했던, 재래식 전쟁의 위험을 훨씬 능가한 위기의 순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미국의 대공산권 강경정책의 연장선에서 한국전의 휴전은 필리핀과 인도지나반도에 대한 미 군사 원조의 증거로, 그리고 뒤이어 베트남에 대한 "반공실자군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4배로 폭증하고 소련과의 전쟁없는 항구적인 군비경쟁, 즉 냉전체제를 확립할 수 있게 된 계기도 바로 한국전쟁이었던 것이다.

'반공도덕주의' 일방교육

우리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최근에 이르기

공격적인 정책을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차라리 스탈린은 조심스럽고 교활한 전략가로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방어적인 정책을 펴나간 데 반하여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을 대한공약 강화를 통해 지지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도발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러한 설명틀내에서 일부학자들은 6·25이전 해주·웅진반도를 포함한 38선에서 남북군대간의 여러차례의 접전을 확대해석하여 이승만과 맥아더가 군사적인 선제공발을 감행했다는 가설을 내세우기도 한다.

"미국 의도적 유도" 주장도

또 다른이들은 49년 미군철수와 전쟁발발직전 전쟁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반도가 배제되었다는 국무장관 애치슨의 선언 등 모든것이 전쟁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합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통이론이 미·소간 힘의 충돌이라는 외부요인을 강조하는 반면 수정이론은 남북간 내부권력투쟁에 초점을 맞추는 내전적 요인 또는 내인론으로 기우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이들 이론이 미·소간 힘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을 국제적 국지전으로 보든, 내전의 국제전화로 보든, 재래식 전쟁의 시각을 통해 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 이들은 전쟁의 원인이 외세에 있다고 보든, 북로당과 남로당 간의 권력투쟁 또는 국내계급간 투쟁을 본질로하는 '내전에 있다고 상정하든, 교전당사국 어느 일방에서 그것을 규명해 보려는 시도를 안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전쟁의 원인규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느냐는 문제영역으로 전쟁의 의미를 축소시킨다.

사실상 '전초전'은 4·3사건등 3년전부터 시작
전쟁권역도 한반도 벗어나 '3차대전' 확산할뻔
휴전뒤 미국 냉전체제 강화... 월남전 줄다름